

정찬주 장편역사소설

<깨달음의 빛, 청자>2부 47

청자동화연꽃무늬주전자

바닷바람이 인당수 쪽에서 거세게 불어왔다. 눈발이 산지사방으로 흩날리는 정월이었다. 교정별감 최항이 추밀원부사 최자를 불렀다. 교정도감은 강도성 궁궐 옆에 있었는데, 한때 최우의 사저였다. 건물의 크기는 고종이 정사를 보는 궁궐의 정전 못지않았다. 잔치를 벌일 때는 건물을 비단으로 화려하게 두른 적도 있었다. 전시 중이라며 손가락질하는 백성이 있었지만 최충헌, 최우, 최항으로 이어진 최씨 교정별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60대 초반의 최자는 교정도감 건물 문 앞에서 문지기 군사들에게 검문을 받았다.

“누구시오?”

“별감 나리를 뵈러 왔네.”

“누구라고 전할갑쇼?”

“나는 최자라고 하네.”

최자가 멧쩍은 표정으로 흰 턱수염을 쓸었다. 아들뻘 되는 군사들에게 검문을 받는 것이 불편했다. 문지기 수장이 나와서야 군사들의 태도가 부드러워졌다.

“추밀부사 나리시다. 어서 문을 열고 도감 나리 별실로 안내하라.”

“예.”

“수문장, 고맙소.”

최자는 교정도감을 두어 번 온 적이 있지만 분위기가 더욱 살벌해진 것 같아 킁킁 헛기침을 했다. 눈발이 흰 눈썹에 달라붙어 최자는 한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안내하는 군사를 뒤따라갔다. 그래도 그는 최항

집권 때부터 늘그막에 관운이 트이고 있었다.

최자(崔滋).

이규보가 최우에게 추천해주어 출세의 계기를 잡은 문신이였다. 강종1년(1212) 문과에 급제하여 상주사록(尙州司錄)이 되었고, 치적을 인정받아 국자감 학유(國子監 學諭)로 승진했다. 그 뒤에 10년간은 한직을 전전하다가 <우미인초가(虞美人草歌)>,<수정배시(水精盃詩)> 라는 시가 이규보의 눈에 띄어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때 마침 최우가 이규보에게 문병(文柄, 문학계의 권력)을 잡을 만한 인물을 묻자, 이규보는 최자를 첫 번째로 추천했던 것이다.

이후 급전도감녹사(給田都監錄事)를 거쳐 제주태수로 갔다. 그런 뒤 고종 때에 정언을 하고 상주목사로 부임하여 탐진 백련사를 돕고 선정을 베풀었다. 또한 내직으로 전중소감(殿中少監)과 보문각대제(寶文閣待制)를 역임했고, 고종20년에는 최린(崔璘), 권술(權述)과 함께 금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왔다.

금나라를 다녀온 뒤에는 충청 및 전라 안찰사로 나갔고, 그 뒤에는 국자감 대사성, 지어사대사(知御史臺事), 상서우복야, 한림학사, 승지를 역임하고 정3품의 추밀원부사가 되었는데, 올해(고종37년) 2월 중에는 중서사인(中書舍人) 홍진(洪縉)과 함께 몽골에 사신으로 들어갈 예정이었다.

최항은 별실 문밖까지 나와 최자를 맞이했다. 보통은 별실에 앉아서 손님을 맞아들였는데 문밖까지 나온 것은 드문 일이었다. 최항이 그러한 태도를 보인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추밀부사, 어서 오시오. 바닷바람이 차갑소.”

“별감 나리께서 부르신다는 전갈을 받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머리카락이 갈대꽃처럼 허연 60대 초반의 최자가 42세의 최항에게 예의를 다 갖추어 말했다. 최항은 4년 전에 죽은 이규보를 떠올리며 말했다.

“백운거사 평장사가 생각나오.”

“아, 저에게는 은인입니다.”

최항은 이규보를 백운거사 평장사라고 불렀다.

“아버님이 각별하게 후원해주셨던 분이지요.”

최우가 이규보를 등용한 것은 그의 실력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부하의 무고로 최충헌에게 밋보여 좌사간마저 면직되고 중벌을 받을 상황이었지만 최우는 그를 변호해 무마했던 것이다. 최충헌이 죽고 최우가 집권하자 이규보도 문신으로서 확고한 기반을 다졌다. 이후 여러 벼슬을 거치면서 참지정사로서 고시관이 되어 과거를 감독하기도 했다.

“아버님은 진각국사 비문을 맡길 정도로 백운거사 평장사를 인정했소.”

“저도 평장사의 진각국사 비문을 보았습니다. 명문 중에 명문입니다.”

“그러나 평장사께서는 비신의 앞면만 쓰고 맡았소. 평장사의 비문에 추기할 부분이 어찌 없겠소?”

별실에 시녀들이 들어와 술자리를 만들었다. 은제금도금주전자와 청자술병, 청자술잔을 내왔다. 안주로는 청자대접에 호두와 잣을 놓았다. 최항이 은제금도금주전자를 보더니 우두머리 시녀에게 말했다.

“왜 이 주전자를 내왔느냐?”

“차가운 술을 덥혀 드시라고 내왔사옵니다.”

“아무리 날씨가 춥기로서니 추밀부사이신데 내가 아끼는 청자주전자를 내와야 되지 않겠느냐?”

“별감 나리, 이 은제주전자도 훌륭합니다. 저로서는 눈이 부실 지경입

니다.”

최자는 은제금도금주전자의 화려한 모양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은제금도금주전자는 대나무 반쪽을 빙 두른 것 같은 몸체와 연꽃 모양의 뚜껑 그리고 맨 윗부분의 봉황과 둥근 통의 받침대(承盤)로 만들어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은제금도금주전자 손잡이는 긴 대나무 조각을 휘어놓은 듯했고, 술이 나오는 부리는 죽순 모양이었고, 부리 끝은 연꽃 모양의 덮개가 달려 있었다. 둥근 통의 받침대는 주전자가 연꽃 뚜껑 부분까지 쑥 들어갈 만큼 컸다. 그리고 은제금도금주전자 뚜껑은 반쯤 피어난 두 송이의 연꽃이 일직선으로 층을 이루었고, 위층의 연꽃에는 봉황새 한 마리가 두 날개를 접은 채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술은 곡주였다. 차가운 술을 덥히기 위해 둥근 통의 받침대 속에는 따뜻한 물이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도 최항은 은제금도금주전자를 바꾸라고 우두머리 시녀에게 지시했다.

“어서 청자주전자를 가져오너라.”

“예, 가져오겠습니다.”

최항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우두머리 시녀가 청자주전자로 재빨리 바꾸어 가져왔다. 그러나 최항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너는 아직도 내가 아끼는 청자주전자를 모른단 말이냐!”

“나리, 어떤 청자주전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원내는 감히 짐작하지 못하겠습니다.”

“허허허.”

최항이 말문이 막혀 헛웃음을 지었다. 시녀가 가지고 나온 청자주전자는 몸통과 뚜껑 전체가 죽순 모양을 한 청록색 청자였다. 이 청자주전자도 도공이 한껏 심혈을 기울인 작품임에 틀림없었다. 죽순을 연상케

하는 몸체에는 가는 엽맥(葉脈)이 섬세하게 음각되어 있었다. 이 청자 죽순모양주전자는 최항이 승려시절 월남사에 있을 때 탐진 사당마을 도공한테 보시받은 것이었는데, 다른 주전자보다 아끼는 청자주전자이기는 했다. 때문에 보통 손님들이 오면 내놓지 않는 청자주전자인데 이보다 더 귀물인 청자주전자도 있었다. 교정도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낮빛이 사색으로 변한 우두머리 시녀를 벌줄 수도 없었다.

“도감에서 오래된 시녀를 들이라.”

“나리 뜻을 헤아리지 못해 죄송하옵니다.”

“궁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너를 탓해 무엇하랴.”

늙은 시녀가 오자 최항은 정색을 하며 말했다.

“너는 내가 가장 아끼는 청자주전자를 알 것이다.”

“예, 별감마마. 하오나 나리께서 깊숙이 보관하라는 청자주전자는 함부로 꺼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폐하께서 도감에 오시면 그때만 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 말은 내가 대취해서 말한 것일 뿐이니 상관하지 마라. 그만큼 귀한 것이어서 당부한 말일 것이니라.”

최자는 최항이 귀물처럼 여기는 청자주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다. 왕이 교정도감에 행차했을 때만 꺼내라고 지시했던 청자주전자가 몹시 보고 싶어졌다. 이윽고 늙은 시녀가 청자주전자와 원통형 받침대를 가지고 왔다. 늙은 시녀가 원통형 받침대에 펄펄 끓는 물을 붓고 나갔다. 그러자 최항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시녀 하나가 곡주가 담긴 청자주전자를 원통형 받침대 속에 넣었다. 최항은 시녀에게 방금 들은 청자주전자에 발효차를 넣으라고 말했다.

“날이 춥다. 술을 마시기 전에 차를 한 잔 하겠으니 우리거라.”

“예, 별감마마.”

받침대 속에 든 뜨거운 물 때문인지 발효차는 금세 우려졌다. 시녀가 차를 청자사발에 한 잔씩 가득 따랐다. 차를 마시고 나자 따뜻한 기운이 몸속으로 퍼졌다. 최항이 말했다.

“추밀부사를 부른 까닭이 있소. 내가 중일 때 나의 스승은 진각대사였소. 진각대사께서 입적하신 지 16년이 되었소. 그런데 국사의 비가 없소. 영골을 봉안한 부도는 입적하신 해에 조계산 광원사(廣原寺) 북쪽 산자락에 세웠지만 아직 비는 조성하지 못했소.”

“진각에 비문을 백운거사 평장사께서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버님께서 백운거사에게 글을 받고 병부상서 김효인에게 글씨를 쓰게 했지만 전시 중이라서 비를 세우지 못했던 것이요.”

“그 뜻을 이루시고자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렇소. 그런데 백운거사 평장사의 글을 보니 아쉬운 점이 많소. 가장 아쉬운 것은 우리 국사의 제자들이 빠졌소. 그러니 이 비가 왜 이제 세워지고 제자들이 누구인지 음기로 밝혀야겠소.”

음기(陰記)란 비석 뒷면에 추가로 더하는 추기(追記)를 뜻했다. 그제야 최자는 최항이 자신을 부른 이유를 눈치 챘다. 최자가 말했다.

“소신은 글을 조금 지을 줄은 아나 글을 잘 쓰지는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글씨는 탁연(卓然)선사에게 부탁할 것이요.”

“치밀하십니다. 소신은 별감 나리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거북받침대나 비신은 월남사 부근 들로 벌써 다듬어 놓았을 것이요. 작년 이맘때 탐진 수령에게 지시해 두었소.”

그러니 최자가 음기만 작성하면 된다는 말이였다.

“나는 이월에 추밀부사께서 몽골에 사신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소.

그러니 가능한 한 빨리 지어주소요.”

“당장 음기를 구상하겠습니다.”

“진각국사비는 아버님에 이어 나까지 숙원이었소. 진각국사님을 월남사로 보내신 것은 아버님이었소. 그만큼 국사님을 아버님께서 존경했소.”

이규보의 글에도 그 인연은 나왔다. 이규보의 비문 중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다.

<계사년(고종 20년·1233)의 동짓날에 본사에 머물며 병이 났다고 알려주자 진양공(晉陽公, 최우)이 듣고 크게 놀라 곧 왕에게 아뢰니 어의(御醫)를 보내 진찰케 하고 봄에 월등사로 옮겨 지내도록 하였다. 마곡(麻谷)이 방에 들어가자 스님 말하기를 “늙은 놈이 오늘 몹시 아프다” 하거늘 마곡(麻谷)이 말하기를 “어째서 이렇게 되셨습니까?” 하니 스님이 답하기를 “모든 괴로움이 이르지 못하는 곳에 다른 하나의 천지(天地)가 있다. 또 그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대적(大寂) 열반의 문(門)이 로다” 하고 스님이 주먹을 세우며 “이 주먹으로 해탈(解脫)의 선법(禪法)을 설파했으니 너희들은 믿겠는가?” 하더니 곧 주먹을 펴 보이며 “펴낸 다섯 손가락이 각기 다르다” 하고서 다시 주먹을 쥐어 보이며 “합하면 뭉쳐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니 펴고 합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하나가 되던, 다섯이 되던 구애될 것은 없다. 비록 이와 같을지라도 주먹이 본래부터 나누어져 있다는 말은 아니다. 어떻게 본래부터 나누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시더니 주먹으로 창문을 한번 쳐서 열고 꺾꺾 크게 웃었다.

갑오년(고종 21·1234) 6월 26일에 문인(門人)들을 불러 모든 일을 부탁하고 마곡에게 이르기를 “늙은 놈이 오늘은 펍 바쁘다” 하므로 대답

하기를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자 스님이 다시 “늙은 놈이 오
늙은 몹시 바쁘다” 하므로 마곡은 막연했는데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가
부좌를 한 채로 열반에 들었다.

다음 날 월등사의 북쪽에서 다비를 하고, 영골을 수습하여 본산(本山)
으로 돌아갔다. 왕이 듣고 몹시 슬퍼하여 진각국사란 시호를 내리고 을
미년의 오월에 광원사 북쪽에 장사를 지냈다. 그리고 부도를 세우고 왕
이 사액을 내리기를 원소(圓照)의 탑이라 하였다. 세상나이 57세요, 출
가했수 32년이다.>

늙은 시녀가 최항이 찾던 청자주전자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자 최항
은 시녀에게 찾자리를 치우고 술자리를 마련하라고 시켰다. 늙은 시녀
가 가지고 들어온 청자주전자를 본 최항은 또다시 놀랐다.

“탐진 수령이 나에게 보내온 것이요. 나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청자주
전자를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볼 수 없을 것이요. 내가 이 청자주전
자를 만난 것을 천재일우라고 할 수 있소.”

최항의 입에서 천재일우(千載一遇)란 말을 듣고 최자는 얼마나 그가
애지중지하는지를 알았다.

“과연 별감 나리께서 귀인을 만나시듯 청자주전자를 대하시는 것을 보
니 소신 또한 감격스럽습니다.”

“탐진 청자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나의 자산이요. 나는 탐진 수령과
향리들에게 지시했소. 청자운반선을 자주 보내겠으니 내 뜻에 부응하라
고 말ियो.”

최항은 월남사에 잠깐 주석했으므로 탐진의 청자를 정확하게 품평할
줄 알았다. 청자를 보물로 인식해온 최항은 세수가 줄어들었으므로 통
치자금으로도 활용했다. 아버지 최우 때부터 탐진 청자를 가능한 한 많

이 사들여 호족들에게 강매하여 상당한 금은보화를 축적했던 것이다.

최자는 청자술잔에 든 술을 조금씩 마시면서 눈앞에 있는 청자주전자 모양에 시선을 빼앗겼다. 과연 청자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아는 최항이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청자주전자 몸체의 상부와 하부는 크고 작은 연꽃봉오리 무늬가 겹쳐 있었다. 한눈에는 조롱박처럼 보였다. 뚜껑은 꽃봉오리 모양을 했고, 몸체 목 부분에는 두 손으로 연꽃을 든 동자가 있고, 인동초 덩굴을 부드럽게 구부려 붙인 모양의 손잡이 위에는 개구리 조각이 얹혀 있었다.

술이나 차가 나오는 부리는 연잎을 말아 붙인 형상이고, 동자와 개구리의 눈은 갈색 철사점(鐵砂點)이 선명했다. 그런데 무엇보다 과감한 착상은 연꽃봉오리 무늬를 동(銅, 구리)이 들어간 붉은 진사로 그린 점이었다. 청자에 진사로 무늬를 그린 것은 고종 이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장식이기 때문이었다. 빛깔은 투명한 담녹색이었지만 유약이 골고루 녹지 않아 하단 일부는 미세한 기포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몸체와 뚜껑의 수려함에 비한다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

“추밀부사께서는 무얼 그리 골똘하게 보시요.”

“차를 마셨던 청자주전자를 보다가 이 주전자를 마주치니 마치 비단 위에 꽃이 던져져 있는 것 같습니다.”

“평장사 백운거사가 인정한 문사답소. 이제 그가 없으니 추밀부사와 같은 문한(文翰)은 없을 것 같소.”

최자는 대취해서 교정도감을 나왔다. 최항은 최자와 술 십여 잔을 주거나 받거나 했지만 입가심으로 차를 몇 잔 했음인지 크게 취하지는 않았다. 최항은 또 삼별초 별장 두 사람을 불렀다. 개경 시절 선친의 사저를 지킨 사병 야별초 출신들이었다. 한 사람은 강도 출신인 김통정이고, 또 한 사람은 출생지가 불분명한 배중손이었다. 배중손은 진도 출

신이라고도 하고, 상주 인근에서 태어났다고도 했다. 그런데 배중손의 조상이 진도에 살았던 것은 분명했다. 어쨌든 두 별장은 개경에서 강도로 천도할 때 건너온 장수들이었다.

“오늘은 매우 기분이 좋은 날이네. 나는 그대들과 술을 한 잔 더 하고 싶네.”

“별감 나리, 영광이옵니다.”

“내가 그대들을 믿는 까닭이 있네. 신의군이 아닌데도 그대들처럼 몽골을 원소로 생각하는 장수를 일찍이 본 적이 없네.”

“몽골은 소장에게 철천지원수이옵니다.”

좌별초, 우별초에다가 몽골군에게 잡혔다가 탈출한 군사로 조직한 부대인 신의군을 합치어 삼별초라고 했다. 그런데 최항은 신의군이 아닌데도 두 사람을 몹시 신뢰했다. 그들의 기개와 용맹을 평소에 인정해 왔던 것이다.

“이 청자주전자는 내가 가장 아끼는 주전자라네. 나는 그대들에게 이 주전자로 술을 주고 싶다네.”

“별감 나리, 우리 두 사람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적을 무찔러 은혜를 갚겠습니다.”

“자네들은 내일 한 분의 고승을 친견할 수 있을 것이네.”

“한미한 소장이 어찌 큰스님을 뵈 수 있겠습니까?”

“선친이 몹시 좋아했던 선사이시네. 그대들을 아껴서 내가 마음을 냈으니 내일 오후에 도감으로 오시게.”

최항은 두 별장에게 자신이 보물처럼 여겨온 청자주전자로 술을 주었다. 이는 그들을 그만큼 믿는다는 증표였다. 두 별장은 취해서도 최항에게 충성 서약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무릎을 꿇고 큰소리로 외쳤다.

“별감 나리! 목숨을 바쳐 강도성과 나리를 지키겠습니다!”

다음날 오후.

교정별감 별실에 또 두 장수가 나타났고, 탁연도 손에 염주를 들고 들어와 최항을 기다렸다. 어제와 달리 별실 찾자리에는 청자동화연꽃무늬 주전자는 없었다. 죽순모양의 청자주전자가 청자촛잔들과 함께 놓여 있었다. 이윽고 최항이 별실로 들어왔다.

“스님을 오시게 해서 미안하오.”

“별감 나리, 그동안 근렘하셨사옵니까?”

“천영(天英)스님도 잘 계시겠지요.”

천영은 탁연과 수선사에서 함께 정진했던 도반이었다.

“단속사를 떠나 지금은 수선사에 있사옵니다. 저는 지금 진도 용장사(龍藏寺)에 있사옵니다.”

최항이 두 장수에게 탁연을 소개하고 인사시켰다.

“천하의 명필 탁연선사이시네. 인사드리게.”

두 장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가 바닥에 닿아 소리가 날 만큼 정중하게 큰절을 했다. 최항이 탁연을 명필로 소개한 것은 과장이 아니었다. 상주목사였던 최자가 백련사를 중창할 때 탁연이 천책의 부탁으로 도량당(道場堂)과 조사전(祖師殿), 허백루(虛白樓), 신청루(神淸樓) 등의 현판 글씨를 썼던 것이다.



<계속>